

# 익산시, 내년 국가예산 확보 사활

### 예산심의 6529억원 최종 반영, 전년대비 117억원 증가

익산시 2019년 국가예산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6,529억원이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이는 2018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인 6,412억 원보다 117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인 6,550억 원보다는 2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2019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의 증액을 위해 2019년 국가예산 확보 긴급 대응체제를 갖추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11월 말까지 정현을 익산시장을 필두로 국·소·단장을 포함한 전 부서가 국회에 일제출장을 실시하여 국비증액 사업과 관계된 지역연고 국회의원을 면담하기로 하고, 서울사무소에서 그에 따른

결과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라북도 국회 상주반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6급 직원 1명을 국회로 보내 정책질 의서 및 증액요구서 작성 전달, 심의 동향 파악, 긴급 상황(삭감 심사 등) 발생 시 신속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증액 요청 사업으로는 문화체육위원회 심의 사업인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84→178억 원)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사업(130→173억 원)이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 사업인 △농생명ICT테스

트베드 기반 구축 사업(36→50억 원),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사업인 △남부2·3, 북부2차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43→61억 원), 하수처리기 감량화 사업(20→70억 원) 등이다.

정현을 시장은 "2018년 국가예산으로 6,721억 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으며, 2019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쳐왔다"며 "국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보건소 전경

## 에이즈검사 연중 무료로 실시

### 군산시보건소, 원한다면 익명검사도 가능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에이즈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에이즈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한다면 익명검사도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에이즈 확진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후 즉시 진료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HIV 감염인의 건강상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HIV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에이즈 환자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면역세포수가 일정기준 이하(CD4+T 세포 수 200/mm<sup>3</sup>)이거나 에이즈로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질병 또는 증상이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

에이즈는 감염인과의 성관계, 감염된 주사기 사용, 수혈, 감염된 여성의 임신·출산·모유 수유 등을 통해 감염되며, 공기, 물, 악수, 포옹, 화장실 공동 사용 및 대중목욕탕 이용, 음식물 같이 먹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에이즈를 조기에 치료하면 면역기능 저하와 관련된 합병증뿐 아니라 면역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합병증도 줄일 수 있으며,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통해 체액 속의 바이러스 농도가 감소되어 타인에 대한 감염력 또한 현저히 감소된다.

에이즈는 감염되더라도 12주 이전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시점으로부터 12주가 지난 뒤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에이즈의 확실한 예방법은 올바른 피임기구 사용과 안전한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주관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주관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원광대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학술회의 개최

원광대학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에서는 최근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동아시아 근대 담론과 탈 오리엔탈리즘'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학술회의는 박광수 종교문제연구소장의 주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중국 북경외국어대의 장시핑 교수, 이화여대 한자경 교수, 원광대 이병환 교수 등 7명의 연구자가 발표를 하고, 논평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학술회의 주제인 '동아시아 근대 담론과 탈 오리엔탈리즘'은 동아시아 근대 담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오리엔탈리즘과 탈 오리엔탈리즘을 재독(再讀)하고, 재발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담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선행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동아시아 투영 독법(投影讀法)과 동아시아의 사상적 대응 방식의 종교, 철학적 양상을 확인한 학술회의로 평가됐다. /익산=우병희 기자

##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정원 축제상 수상

익산의 대표 축제인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30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 개최된 국제평화정원 조성 컨퍼런스에서 올해의 정원 축제상을 수상했다.

국제정원관개네트워크, 한국지부장 정강환 배재대 교수는 정원관광과 관련된 콘텐츠를 부문별로 평가하여 시상하는데,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경우 지역축제로서 대표성, 방문객

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수상하게 되었다. "국제정원 관계자들이 인정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오는 4일까지 열리니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15회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한 바람개비 국화동상, LED 야간 조형물, 여행길 포토존에서 많은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와 바이텍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익산시-바이텍,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익산시가 30일 (주)바이텍(대표 이도행)과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분양계약으로 올해 들어 13번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외투기업 1개를 포함, 총 60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마쳤다.

(주)바이텍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로 로열젤리를 효소처리한 뒤 분말제조로 가공하는 회사로 대량 양산체제를 갖추기 위해 7,023㎡(2,128평) 부지에 약 40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인원도 15명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7월 중에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도행 대표는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소비자 트렌드에 한발 앞선 식품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함께 특화, R&D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중심으로 환영하며, 원료수급, R&D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산불예방 홍보

군산시는 30일 제268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월명공원 일원에서 가을철 안전산행을 위한 산불예방 홍보에 나섰다.

재난안전담당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군산시 안전보안관, 민간예찰

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악사고 및 가을 건조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청년 취업 캠프 운영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김제 금산사에서 '청년취업 힐링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아름다운 사찰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청년 구직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캠프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신청증을 지참해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2박 3일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가 ▲꿈, 마음 알아차림 명상 ▲삶의 청사진 그리기 ▲비밀한 삶의 주인공 되기 등 다양한 마음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이해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시간을 갖게 된다.

박남균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취업난으로 심신이 위축되어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취업 자신감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힐링캠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450-1305)를 통해 문의하거나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